

한미약품, ‘근육 증가형 비만치료’ 잭팟… 3.5조 기술수출

제넨텍 ‘HM17321’ 라이선스 계약
올해 첫 국산 비만치료제 발매 예정
대사건강회복 중심 시장구도 재편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체중 감량은 물론 근육 보존, 체성분 개선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앞세워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빅파마 로슈 그룹의 자회사 제넨텍과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관련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제넨텍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17321 개발, 제조 및 상업화·독점 권리를 확보했고 한미약품은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금금 1억 9000만 달러(약 2850억원)를 포함해 개발 및 상업화 성과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23억 달러(약 3조5000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HM17321은 세계 최초 근육 증가형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다.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비인크레틴 계열 약물로, 신경 펩타이드 호르몬인 ‘유로코르틴2(UCN2)’ 유사체다.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코르티코르틴 방출 인자2(CRF2) 수용체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기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기반 인크레틴 계열 치료제의 최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근 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열 내 최초 신약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 비만치료제들은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골격근을 포함한 제지방 감소로 이어져 기초대사량 저하와 요요 현상을 유발한다. 반면 HM17321은 비임상 연구에서 선택적으로 지방량만 줄이면서 근육량과 근기능을 개선하는 독보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HM17321의 임상 개발 역시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

ND)을 승인받은 한미약품은 현재 건강한 성인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임상 2상부터는 제넨텍이 개발을 이어받아 글로벌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HM17321은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로 설계되어 단독 투여는 물론 기존 GLP-1 계열 치료제와의 고정용량복합제(FDC) 개발 및 병용 치료 전략으로 확장성까지 갖췄다.

아울러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경쟁력은 단일 물질에 그치지 않고 총합하게 구축된 ‘H.O.P(Hanmi Obesity Pipelin

e)’ 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올해 첫 국산 비만 치료제 발매를 앞뒀다.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한국인 체형과 대사 특성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국내 첫 비만약 상업화를 시작으로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 및 복합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펩타이드 기반 물질로 설계된 후속 파이프라인 ‘HM500197’ 역시 근 손실 보완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도한 골격근 감소는 장기적인 체중 유지를 방해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를 ‘대사 건강 회복’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한미약품 최인영 부사장(미래성장부문장)은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체성분 개선과 대사 건강 회복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HM17321의 차별화된 과학적 기전과 개발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환자들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차별화된 치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임금근로 일자리 2년만에 최대… 20대 일자리는 여전히 줄어

전년동기 대비 29만개 이상 늘어
보건·사회복지업 ↑ 건설·제조업 ↓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8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20대 연령층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1.4%(29만2000개)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24년 1분기의 31만4000개 증가 이후로 최근 8개 분기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000개를 저점으로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

9000개, 4분기 22만1000개에 이어 올해 1분기 29만2000개까지 4분기 연속으로 확대됐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41만6000개로 74.0%를 차지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대체 일자리는 318만6000개(15.3%),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22만6000개(10.7%)였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193만4000개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2만7000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사회 복지 서비스업에서 8만8000개, 보건업에서 4만개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일자리도 5만9000개 늘어

다. 또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5만6000개, 숙박업에서 3000개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3만7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은 2만8000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5만2000개 감소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3만5000개, 종합건설업에서 1만7000개 줄었다. 다만 건설업 감소폭은 지난해 1분기 15만4000개에서 4분기 8만8000개, 올해 1분기 5만2000개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일자리도 1000개 줄었지만 지난해 4분기 1만4000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섬유제품 염색 일자리가 3000개 감소했고 기타 금속가공제품과 통신·방송장비에서 각각 2000개 줄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3만

3000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대도 11만5000개, 50대는 4만개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6000개 감소했고 40대도 1만9000개 줄었다.

다만 감소폭은 모두 축소됐다. 20대 이하 일자리 감소폭은 지난해 1분기 16만8000개에서 2분기 13만5000개, 3분기 12만7000개, 4분기 11만1000개를 거쳐 올해 1분기 7만6000개로 줄었다.

20대 이하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가 2만6000개 감소했고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에서도 각각 1만4000개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7만5000개, 여성 일자리가 21만7000개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구윤철 부총리, AIIB 신임 총재 면담… “韓 기업 협력, 힘써주시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쑤우 총재 “인프라 사업 등 협력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쑤우자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임 총재를 만나 ‘한국 기업과의 협력’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와 도출을 위한 은행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방한 중인 쑤우 AIIB 신임 총재와 면담했다. 양측은 한국 기업과 AIIB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AIIB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명실상부한 글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쑤우자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로벌 다자개발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임 총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금융 역량이 결합되면

각종 개발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은행 내 고위급에서 실무자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분야에 한국인 채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쑤우 총재는 개발 경험과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기술 기반 인프라사업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AIIB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5대 주주로서 적극 기여한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쑤우 총재 내한은 지난 1월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내 선진 공여국을 방문하는 일정 중 하나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 1면 “AI 인재 모셔라”…’서 계속

영남 등 산학협력 활발 이달말부터 본격 채용

한화그룹은 영남권 핵심 대학과 손잡고 AI·우주항공 분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계열사는 부산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와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 및 석사과정을 운영해, 선발된 우수 인재에게 학자금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밝힌 55조 규모 영남권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차세대 인재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롯데와 CJ 등 소비재·유통 기업도 AI·데이터 직무를 기존 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연결해 채용하는 추세다.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일정도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대기업 채용은 ‘공채냐 수시냐’를 넘어 실제 채용 인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신입의 경우 학력과 스펙보다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 능력 등 성장 가능성을, 경력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비트코인 일주일새…’서 계속

클래리티법 기대감 고조 장기적인 상승세 분석도

클래리티법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자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리는 천가상자산 법안으로 분류된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클래리티법은 미 공화당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 민주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8월 내에 클래리티법의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법의 조기 입법을 촉구하자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장기적인 상승세에 돌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은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토큰화 및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미 단국채의 새로운 구조적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BTC·ETH 관련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할인 폭 축소가 이어지면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추세에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